논 문
CODE 20401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Entry Space in an Apartment Building

전영훈* / Jeon, Young-H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nd assembly the meaning and function of entry space with analysing their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 The entry space is the linkable place between inner space and out space, and that is the transition place to be experienced two opposing characteristic. Till now the entry space has not taken effect as symbol needed to the resident and observer, and that has been a tendency to shrink as the minimal sign of entrance. So thus, it is in need of studying the entry space's specific and characterizing structurally as expanded func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define newly the meaning, function and composition of entry space in an apartment building, and try to find how to reinforce a resident identity. This study propose justification that the entry space isn't boxing space minimally but enforcing symbol presented clearness of composition and vital character.

키워드 : 진입공간, 공동주택, 분리, 연결, 개구부, 진입공간의 구성요소·의미·기능

Keywords : Entry space, Apartment building, Separation, Connection, Entrance, Element, Meaning and function of the entry place

1. 서론

건축은 조형예술처럼 형태와 형상을 가지고 작업하며, 회화와 같이 색채를 가지고 작업한다. 그러나 건축은 조형예술과 회화와는 달리 기능의 수행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즉 건축은 인간을 위한 도구를 창출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사용 가능성에 모든 사고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은 일종의 매우 전문화된 사용예술이며 실질적인 과제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내부공간을 형성하고 우리의 존재를 둘러싸는 외부에 대한 경계를 창출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형예술과 건축과의 차이점을 논할 때, 조형예술은 건축보다 좀 더 추상에 가까운 형태들을 다루고, 건축은 조형예술보다는 유기적인 형태들을 다룬다는 관점은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건축물과 달리 조형물에는 결정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사용목적이다.[1] 단순히 기하학적으로 형태를 규정하는 추상적 조형물 그 자체가 건축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축의 사용에 관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진입공간이 제공한다.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벽 또는 창으로 둘러싸여진 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은 진입공간을 통해서 사용자와 연결된다. 여기서 건축물과 사용자의 연결이라는 문제는 단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사이에 개구부를 만들어 단순한 기술적 해결방법으로 사고의 범위를 축소시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입공간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강렬하게 부딪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은 진입이라는 단순 사용목적을 넘어서 그 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건축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케빈 린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도시의 형태와 의미와의 관계와 도시의 그림을 좀 더 생동감 있고 인상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도시계획가들의 책임에 대해 질문했다.[2]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의미론적으로 '도시'에 '진입공간'을 '도시계획가'에 '건축가'를 대체하여 전용해보면, 진입공간이라는 주제는 결국 상징적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당 시대의 사회집단체와 문화적 이미지가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로 치환되어 진입공간의 구성에 구조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기능을 확대 정의하고 의미를 보

* 정회원,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 이 논문은 2005년도 대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1)Rasmussen, Stehen Eiler: Architektur Erlebnis, üb. Elisabeth Drugowitsch, Stuttgart, 1980, p.9

2)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u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dt: Das Bild der Stadt. (Übers. Henni Korssakoff-Schröder, Richard Michael). Braunschweig/Wiesbaden, 1989, p.9

다 명료히 함으로써 현재 단조로운 공동주택의 공간 구성요소의 구성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한 개념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을 행하는 사람이나 건축을 관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에 대한 공간적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도시환경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형태적 빈곤성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이공간의 대표적 특성인 분리와 연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특성과 정체성 그리고 기능을 도출하는 이론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2.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접근

2.1. 연구대상의 특징

공동주택건축물은 주거건축으로서 대도시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주거형태이다. 미국과 유럽의 거의 모든 대도시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층주거건축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독일의 서베를린의 경우를 예를 들면, 1953년부터 1968년까지 고층주거건축물은 임대주택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비약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임대주택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넓은 계층을 수용하는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이 취약한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 임차가능성과 함께 그들의 요구수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었다.[3] 이 시대에 이러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고층주거건축으로서의 주거형태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 정립되었다. 밀도의 완화와 충분한 조경면적의 확보가 그 것인데, 이는 벌써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근대건축에서 추구하던 것이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당시 건설의 현실화에서 필요한 두 가지의 실제적인 영향요소인데, 이는 취약한 경제력과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필요한 첫 번째 주택촉진법이 1950년 4월 24일 그리고 두 번째 주택촉진법이 그 해 6월 27일 발효되었다.[4] 따라서 한편으로는 당시에 급박하게 요구되던 아테네 헌장의 새로운 해석과 강력한 수요가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한 원인이 되었으며, 근본적인 동인들의 발굴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법이 한계를 명시함과 함께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건축물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사용한 절약형의 진입공간들이 양산되었는데, 예를 들어 20-50 가구 당 하나의 계단실과 승강기, 좁은 문과 복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진입공간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조형적 투자의 빈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대화의 단절, 이웃 간 어떠한 주거 형태보다 물리적 근접성이 확보되었으나 도리어 증가된 거리감, 이러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반달리즘 등이다.

21세기에 들어서기 전 세계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고층주거건축이라는 공동주택 건축형태는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 30년 내에 도시인구는 전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외교에 관한 보고서인 Foreign Affairs에 Eugene Linden이 "도시들의 운명이 국가들과 세계 여러 지역들의 운명에 점점 더 많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발전상황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고층건물들이 장래의 대도시들의 주거형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2.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형태적 빈곤성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근대에 들어와 커다란 지형적 이동, 농촌에서의 탈출이 19세기 후반부에 모든 서양 나라들에서 일어났다. 1850년대에는 프랑스, 독일,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특히 농촌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다. 1세기 후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들로 몰려들었으며, 특히 도시의 중심부에 밀도 높게 집중되었다. 서베를린과 뉴욕은 런던이 그랬던 것처럼 급격한 비율로 성장하고 확대되었으며, 국제 상거래에 새롭게 등장한 구조체계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하던 토지의 가격 상승을 경험하였다. 1848년부터 1953년 까지 일백년은 여러 가지 충분한 근거에 의해 "도시 혁명"의 시대로 불린다.[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대도시들에서는 주거부족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화된 건설기술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건축사에서는 이러한 발전이 이미 정리되어, 미래주의자 또는 냉철한 계산과 단순함으로부터 나온 바우하우스와 드 스틸의 근대건축운동으로부터 발생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장식없는 공간의 창출로부터 합리적으로 계산된 대규모 주거건축으로 몰락한 희망으로 정의되었다. 이렇게 주거건축이 단순히 저장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건축으로 치환되면 더 이상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반기는 몸짓은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반기

3)Dörre, A.: Entwicklung und Ergebnis des sozialen Wohnungsbaues; in: Berlin und seine Bauten. Teil IV. Band A, Berlin, 1970, p.25

4)Vgl. Dörre, A.: Entwicklung und Ergebnis des sozialen Wohnungsbaues. 1970, p.29

5)Sennett, Richard: Fleisch und Stein; in: Der Körper und die Stadt in der westlichen Zivilisation, Berlin, 1997, p.395

는 몸짓 또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어느 정도 크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돈이 절약되는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호사로 여겨질 뿐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적절한 진입공간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대규모 주거건축의 경제논리에서는 진입공간의 다양한 기능과 그 의미가 단순히 연결기능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주거건축물에서 진입공간은 주민들에게 '나의 집'이라는 존재감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무딘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언제까지나 즐거운 변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이 연결기능만으로 축소되어 사용될 때, 우리의 주거환경이 황폐화되며 슬럼화 되는 현상을 많은 선진국들의 대도시들이 보여준다.

2.3. 분리와 연결의 상관관계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외부의 자연을 모두 연결하거나 또는 모두 분리하는 양면성을 제공한다.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이거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연결한다.

창문을 목적론적 감성으로 접근하면, 그 것은 확실히 안에서 밖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입구는 많은 것을 인간의 깊은 곳에 실제적으로 호소하는데, 왜냐하면 진입구는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만 이 경계는 자유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진입구는 분리와 연결의식 모두를 동시에 내포하며, 이에 따라 경계의 기능을 들어 올려 자신의 영역 밖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와 객체는 상관된 개념으로서 서로를 제약한다. 주관적 세계가 없는 객관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는 반대로 객관적 세계 없이 주관적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 세계나 주관적 세계는 단독으로는 현실이 될 수 없다. '객체' 그리고 '주체' 단독으로가 아니라, '객체-주체'라는 관계만이 실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재란 사물이 아닌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6] 관계의 부재와 불명확은 의심을 야기한다.

꿈과 현실 사이에는 특징적인 턱이 없다. 사람이 꿈을 꿀 때, 그 사람은 꿈을 현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사람은 비로소 현실에서 꿈이 환상이었음을 자각한다. 그러나 과연 환상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꿈에 대한 원초적 주제는 장자에 의해 매력적으로 변형된다. "어느 날 장쯔는 꿈을 꾸었다. 그는 한 마리 나비였다 - 의심 없이 제멋대로 날갯짓하며 날아다니는 나비. 그 때 장쯔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갑자기 그는 깨어났고, 곧바로 다시 장쯔로 돌아왔다. 지금 그는 장쯔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한 마리 나비가 장쯔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쯔와 나비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만 한다!"[7] 이것을 사람들은 사물의 변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실제와 가상 간에 의심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꿈과 현실사이의 턱이 그 특성 상 매우 약한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이다.

꿈의 세계와는 달리 진입공간은 두 세계 간의 명확한 턱을 제공한다. 우리는 항상 의심 없이 우리가 있는 곳을 의식하고 진입공간을 넘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물 간 움직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곳, 즉 진입공간과 같이 내부와 외부를 정확히 가르는 곳에서는 공간의 경험을 가장 강하게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인지를 촉발하도록 적합하게 진입공간의 형태를 구성하면, 이를 인지하는 주체와 건축적 환경에 내재한 정체성이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촉진시키며, 이와 함께 건축을 행하는 사람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부분을 건축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특성

3.1. 개구부의 정의

건축이론이란 상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실무 또는 지식을 객관적으로 수고롭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알베르티는 개구부를 건축예술의 여섯 가지 요소 중 하나로 구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리는 건물에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과 물건의 출입을 항상 보장하는 곳을 개구부라 칭한다."[8] 만일 개구부를 공간적 느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비워둔 외부공간, 끊어진 곳, 틈새, 모서리의 절단부등도 모두 개구부에 속한다. 이러한 개구부들이 진입공간에서 자신의 목적과 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상을 가질 때 비로소 이들은 출입구, 통로, 통과문등의 이름을 부여받는다.

(1) 출입구

우리나라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매우 간결하게 출입구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어귀나 문으로 정의하며, 독일어 사전 두덴은 출입구란 문이나 개구부로서 사람이 이를 통하여 내부로 진입할 수 있거나, 건물, 공간, 막힌 대지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거나 지나쳐 건너갈 수 있는 장소로서 출입구를 정의한다. 출입구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연관시켜 좀 더 광범위하게 상위개념을 살펴보면 출입구를 통한 또는 출입구에서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진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진행의 주체가 사람인지 아니면 사물인지 그리고 이러한 진행이

6)Flusser, Vilém: Das Ende der Tyrannei; in "ARCH+", Nr. 111, März, 1992, p.21

7)Schleichert, Hubert: Klassische chinesische Philosophie; Eine Einführung. Frankfurt a/M, 1990, p.172

8)Alberti, Leon Battista: De le aedificatoria libri X. Florenz, 1485. dt: Zehn Bücher über die Baukunst. Darmstadt, 1975, p.20

수행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 독일어와 한국어와는 달리 예를 들면 스페인어의 "Entrda"나 영어인 "Entrance"는 이러한 과정에 놓인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기도 한다.[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출입구는 통로나 중간문 모두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다른 한편으로 출입구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라는 상반된 공간사이에 직접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진입공간에서 출입구는 초점 즉 중심점이며, 전략적 분기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출입구는 자신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 상징적 이미지를 제시하며, 이로 인하여 출입구는 우리의 지각능력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그 형태나 통일성의 관계가 우리의 관습에서 낯설지 않도록 표현되어야한다.[10] 그러나 출입구는 관념상 모순을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출입구는 한편으로는 보호를 위한 장애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초대의 몸짓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건물의 종류에 따라 형태와 재료에 의해 특징져지는 수많은 형태의 출입구들이 존재한다.

(2) 통로

통로는 진입하는 사람에게 단계적인 진입의 틱을 제공함으로써, 즉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진입의 느낌을 한층 고취시킨다. 이러한 진입 단계의 구성은 단지 하나의 구성요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개의 구성요소들로 점진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길에서는 "통과 중" 그리고 분리구역에서는 "통과 구역"에 있다는 느낌은 진입자로 하여금 "외부에 있음"과 "내부에 있음"간의 차이점에 점차 적응하며 결국은 "내부에 있음"을 준비하는데 기여한다.[11]

(3) 통과문

통과문은 통로에서 파생한다. 통로는 대부분 여러 개의 구성요소들을 형태적으로 서로 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구성되나, 통과문은 단단하게 끼어든 압축된 형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통과문은 단지 짧은 순간의 통로구역을 구성한다. 이러한 압축된 형상은 진입 분위기의 누적 대신에 지체 없는 통과를 가능하게 한다. 변화된 장소를 즉시 인지하게 하기 위해 이 경우에 자신의 고유한 기능과 함께 인식표식으로 몇 개의 특징적 요소들이 함께 쓰이는데, 예를 들면 공간적 차이점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과문의 깊이로 인해 발생하는 빛의 강도의 변화나 동아시아 문화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충분히 인지 가능한 높이의 문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3.2.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구성과 의미

(1)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구성요소

우리는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명료하거나 섬세한 차이점들을 찾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조적인 또는 숨겨진 일치점을 찾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공의 공간, 종교적 공간 그리고 개인적 공간에서[12] -일반적인 주택이나 고층 주거건축물을 포함하는 - 진입공간의 일치점은 꾸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다. 이 일치점을 관찰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목적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또한 공통점의 생명력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구성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방향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 건축적 형태와 질서의 기본원리를 제시한다. 특히 이들은 양식과 시대에 상대적으로 종석성이 강하지 않아야 한다.

- 건축에 있어서 계획이란 개인적인 예술적 행위의 과정으로 보기 보다는 시대적 단편들의 삽입을 통하여 현존하는 상황의 현실화로서 이해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공동체와 모양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향성의 상실을 보상한다.[13]

알베르티는 주택을 도시와 동일시하였다. 그는 집을 건축하는 행위는 도시를 건축함과 다르지 않아, 두 가지 행위 모두 고려되는 사항들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14] 여기서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주택과 진입공간을 비교하면 진입공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결국은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고려사항들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된다. 케빈 린치 Kevin Lynch는 모든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연구에서 이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이미지란 글자 그대로 의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모양을 뜻한다. 따라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5]

- 사적 이미지: 모든 사적 이미지는 하나뿐이며, 이러한 이미지는 거의 또는 절대로 다른 것들과 그 의미를 분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공적 이미지 또는 많은 거주자들에 의해 그 하나하나가 보호되는 일련의 공적 이미지: 이러한 집단적 이미지는 사회적 기능을 수반하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존재가 그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하며 그의 이웃

9)Holgado, Pablo F.: Der Eingang, Form und kulturelle Einflüsse. Die Fakultät für Bauwesen der Universität Hannover, 1981, p.10

10)Broadbent, G. / Bunt, R. / Jencks, Ch.: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London, 1980, p.97
"기둥은 관념상 이미형태나 건축물의 구조적 문맥의 한 세트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둥'을 단지 건축적 언어로만 이해한다."

11)Holgado, Pablo F.: Der Eingang, Form und kulturelle Einflüsse. 1981, a.a.O. p.51

12)Flusser, Vilém: Die Stadt als Wellental in der Bilderflut; in: 'ARCH+", Nr. 111 März 1992, p.58

13)Vgl. Meiss, Pierre von: Vom Objekt zum Raum zum Ort, Dimensionen der Architektur. 1993, a.a.O. p.19

14)Alberti, Leon Battista: Zehn Bücher über die Baukunst.1975, a.a.O. p.262

15)Vgl. Lynch, Kevin: Das Bild der Stadt. 1989, a.a.O. p.60

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조적 일치점과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모양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길, 경계선, 영역, 초점 그리고 상징기호.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실제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간섭하며 침범한다.

① 길

관찰자는 습관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또는 우연히 길을 통하여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통하여 움직이는 동안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을 관찰하며, 이러한 동작의 선을 따라 - 길과 연관되어 - 다른 구성요소들이 환경에 따라 정렬되어 있다.

② 경계선

경계선은 한편으로는 두 가지의 영역, 즉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이며 이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선적 구조물로 작용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두 영역 사이의 간극을 메워 서로를 연결하기도 한다.

③ 영역

영역은 중간 단계에서 커다란 단계까지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은 이차원적으로 인지되며, 관찰자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며' 영역이 보여주는 개별적 특성에 근거하여 이 영역을 정의하며 인식한다. '안으로'라는 개념을 항상 확인하기 위하여 '밖으로'라는 상대 개념이 사용된다.

④ 초점

초점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중심점이며 목적지이다. 어떤 초점들은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산하며 이것을 심벌로서 형상화하는 중심지나 경개(梗槪)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

⑤ 상징기호

상징기호는 '시각적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된다. - 물론 관찰자는 그 안으로 진입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단지 외부의 특징물이다. 상징기호를 사용하려면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단 하나의 요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징기호들의 대다수가 관찰자로부터 일정한 거리 떨어져 위치하며, 이러한 간격은 보편적으로 관점과 장소에 따라 상이한 자신의 효과를 발휘한다.

⑵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의미

외부에서 보이는 사물들의 형상은 연결과 분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인간은, 항상 분리하는 그리고 분리하지 않고는 연결할 수 없는, 연결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자지고 있지 않으나 또한 한계를 가지는 존재이다: "단지 인간만이 자연에 대해 연결하거나 이를 풀거나 한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의 고유한 성질은 하나는 다른 하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연적인 사물들의 온전한 층으로부터 이를 '분리'라는 개념으로써 표현하기 위하여 두 개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의식 안에 하나가 다른 것에 겹쳐서 있는 것으로 이 사물을 파악하며, 이 둘은 함께 그 사이에 놓인 것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 반대의 현상 역시 성립한다. 우리가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은 분리되어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리되지 않은 것, 어떤 의미에서든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하다."[16]

진입공간은 이러한 인간의 두 가지 특성을 실현하는 턱이다. 틀림없이 인간은 건물을 담이나 벽을 통하여 외부공간과 분리한다. 그리고는 문과 창문 등의 개구부들을 만들어 이를 통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간 교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개구부들을 통하여 우리는 외부와 내부에 복수의 관계를 형성한다. 진입공간은 선형의 담, 창문 그리고 문과는 다르게 깊이를 갖는 장소이다. 사람들은 서서 머물거나 움직인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간극은 턱의 특징에 대한 우리의 인지감을 더욱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영혼의 흥분상태를 상징화 한다. 두려움과 안전함, 고독과 희만, 용기, 변화. 진입공간은 과거에 (혹은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 것은 바로 두 가지 상황, 두 개의 세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빛과 어둠, 순수함과 죄 사이의 통로였다. 그렇게 진입공간은 꿈의 미로를 열고 닫는다.[17]

삶과 그 삶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턱으로써의 진입공간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게오르그 짐멜은 인간의 행동양식에서 연결과 분리 중 어떤 형식을 따르는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확신한다. 연결 또는 분리, 둘 중 어떤 하나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가에 따라 또는 어느 것을 자신의 삶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가에 따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누어진다.[18]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의미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은 분리와 연결이 함께 발생하는 턱으로써 작용한다.

- 연결성과 분리성에 대한 의미는 삶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어떤 개념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

16)Simmel, Georg: Das Individuum und die Freiheit. Frankfurt a/M, 1993, p.11

17)Ditzen, Lore: Türen, Sinnbilder und Abbilder. in: Wolfgang Lauter: *Tür und Tore, Zwischen drinnen und draußen. Dortmund, 1980, p.169* 로레 디젠은 문을 일종의 상징물로 여겼다. 문이 물리적으로 확장된 영역이 진입공간이기 때문에, 진입공간 역시 상징성을 가진다.

18)Simmel, Georg: Das Individuum und die Freiheit. 1993, a.a.O. p.7

하는 가에 따라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 그 결과로써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은 개인, 단체 또는 공동체의 내부나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배하는 사고와 관련되어 표현된다.

(3)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구성과 의미의 상관성

사물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그 형태에 의해 발생한다. 형태심리학은 세부형태들의 의미는 우선 그들의 연관성 안에서 정의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상호 결합의 장이 변하면 그 의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19]

한 사물을 주어진 영역 내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또는 다수의 사물들을 연관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때,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물들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념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특정한 형상은 이를 이루는 사물들의 공간적 또는 구조적 관계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관찰자나 외부의 다른 사물들을 향하여 표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물이 관찰자를 위해 직접적으로나 또는 감성적으로나 어떠한 의미를 함유해야만 한다. 여기서 사용된 '의미'라는 개념 또한 관계이지만, 공간적 또는 구조적 관계와는 완전히 구분된다. 그래서 진입의 목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형상에서는 문이 다른 사물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실체로서 인식되어야만 하며, 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한 공간적 관계 또는 그 곳을 통하여 진입하는 개구부로서의 의미는 명백하게 보고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구성과 의미는 본질 상 서로 구분할 수 없다. 문에 대한 시각적 인식과 문으로서의 의미는 매우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20]

하나의 사물, 예를 들어 개별화된 상징물이나 홀로 서있는 고층건물이 주위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무게를 가지고 많든 적든 간에 개략의 진입공간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일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물체나 생명체에서 발산하는 무형의 방사선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사선의 발산 범위는 한편으로는 물체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물체가 서 있는 장소의 주변 맥락에 따라 정해진다. 단 하나의 물체가 발산하는 방사선은 종종 불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 물체와 관련된 다른 사물들과 함께 형태와 구체적인 경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21]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는 고층주거건축물의 진입공간을 형성하는 원형 광장의 부족함을 그 중심에 조형물을 세워 거기서 발산하는 방사선으로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는 단독주택의 일반적인 경계를 연상시키는 목재 담으로 진입공간과 외부공간을 예리하게 자르는 선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구성과 의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규정하는 사물들의 배치 성향에 따라 발전한다. 공동주택의 진입공간만 보더라도 다섯 개의 요소들 - 길, 경계선, 영역, 초점 그리고 종종 특징기호가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적 영향력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간감의 강도는 한정된 형태들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거나 이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에 접근할 때 증가한다.

4. 정체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의 진입공간

4.1. 공동주택 진입공간에 관련된 인간의 정체성

건축적으로 짜인 조직의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특징들의 이해를 위한 유형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 저 편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야기하는 익숙함과 관습에 대한 실체를 찾는 노력이 숨어있다.[22] 양식의 표현수단뿐만 아니라 구조적 특수성은 관습을 따른다. 관습에 따른 표현방법이란 구축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것들의 형태나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일반적이라 함은 정체성, 구조 그리고 의미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환경에 대한 이미지에 그 근거를 둔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현실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3]

한 집합체 또는 개인과 그를 둘러 싼 삼라만상과의 조화는 일차적으로 인간이 소재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함으로써 보장된다. 인간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소속된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구조 안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24]

- 인간의 본질로서의 정체성 - 호모 사피엔스 - 이것은 인간을 물리적 세계, 광물, 식물 그리고 동물세계로부터 구분한다.

-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사람은 이 단체와 공동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토론한다. 가족, 정당, 조합과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

- 개인으로서의 정체성. 개인은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을 지

19)Venturi, Robert: Komplexität und Widerspruch in der Architektur. 1978, a.a.O. p.66

20)Lynch, Kevin: Das Bild der Stadt. 1989, a.a.O. p.18

21)Vgl. Meiss, Pierre von: Vom Objekt zum Raum zum Ort, Dimensionen der Architektur. 1993, a.a.O. p.104

22)Christian Devilliers / Bernard Huer: Le Creusot, Naissance et development d'une ville industrielle 1782-1914. Champ-Vallon, 1981.

23)Lynch, Kevin: Das Bild der Stadt. 1989, a.a.O. p.18

24)Meiss, Pierre von: Vom Objekt zum Raum zum Ort, Dimensionen der Architektur. 1993, a.a.O. p.169

기 위한 사적공간을 유지한다. 이곳에서 그는 단체와 그리고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과 유리된다. 모든 인간은 유일무이하다.

집에 담을 두름으로써 벌거벗은 보편적인 공간이 특별한 사적공간으로 재단되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공간으로부터 내부공간이 잘라져 형성된다.[25] 그러나 이러한 내부공간은 개인의 인격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한다. 라포포르트는 개인성향의 수준은 많은 부분이 문화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한다.[26] 예를 들면 소음에 대해 독일 사람들은 반사회적 현상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반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소음을 즐긴다고 할 정도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연구에서는 이러한 넓은 범위의 문화를 다루는 관점은 배제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이 제한된 그룹만을 위하여 제공되기 때문이다. 즉,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에서 외부인의 진입에 대해서는 보호적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인간은 낯선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어떠한 접점도 찾기가 어렵다.

4.2. 건축 환경과 정체성의 감성과의 연결

한 지점에서의 정체성은 그 장소와 그 곳에 관계를 가지고 서 있는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다. 건축되어진 곳은 항상 인간의 행위, 생각 그리고 역사와 연결된 장소이다.[27] 이 장소는 규정할 수 있으며, 설명 할 수 있고, 그 곳에서의 행동규범을 알게 한다. 건물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아니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지역은 아마도 시골의 또는 도시 내의 한 장소일 것이다. 이 장소는 우리의 침범으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강화되거나 또는 변화될 것이다. 이 지역이 지금은 어느 한 개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일지라도, 적어도 미래의 거주자들과는 커다란 관계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곳에 공공기관이라도 들어선다면, 이 장소는 공공성을 가지는 역할을 담당하여야만 한다.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은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 장소를 규정해나가는 것과 동일하다.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은 모든 거주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공시설물이다. 어떤 공동주택의 진입공간들은 경제활동이나 교환을 위하여 규정되며, 또 어떤 것들은 귀환이나 고립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거주자는 이 장소에서 그들의 건축경험을 축척하고, 이렇게 축적된 건축경험들은 점차 하나의 종합된 그림으로 변환한다. 이러한 종합된 그림은 결국 이 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존재를 위한 연결점이 된다. 따라서 주택의 거주자는 야성이 가득한 익명성으로부터 귀가 시 연결성에서 파생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선사하는 이 정체성에 신뢰를 보내게 된다.

25)Bollnow, Otto F.: Mensch und Raum. Stuttgart, 1963.
26)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New Jersey 1969.
27)Heidegger, Martin: Vorträge und Aufsätze. p.155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를, 특히 대규모 주거건축에서, 경제적 문제나 원하는 공급의 부족 등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다. 그 뿐만 아니라 한 장소의 계획에서 시작단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또한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하도록 작용하는 적응능력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매우 극단적인 예로서 16세기 베니스에 세워진 유대인 격리소 게토 누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게토 누보는 마름모꼴의 지역으로써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건물들이 이 마름모꼴의 대지 가장자리에 가득 차 있어 마치 대지 외부에 대해 담장을 형성한 모양이었고, 대지 중앙에 열린 광장이 있었다. 단지 두 개의 다리만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 다리를 폐쇄하면 게토 누보는 마치 빗장을 잠근 꼴이었다. 게토 누보를 이용하자는 제안은 1515년 짜카리라 돌핀에 의해 세워졌다. 유대인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그의 계획은 "[...] 유대인들을 모두 마치 산성과 같은 게토 누보에서의 생활로 제한하며 연결 다리를 건설하고 게토를 하나의 담으로 둘러싼다. 게토는 연결 시설물로서 단지 하나의 문만을 가지며, 유대인들은 그 곳에서만 머물고, 두 개의 보트가 그 곳으로 운항할 수 있으며 밤에는 그 곳에서 머무르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한 대가는 스스로 지출한다."[28] 이 밖에도 밖을 향해 나 있는 모든 창문들은 폐쇄되었다. 모든 발코니는 제거되어 운하 쪽의 건물들은 마치 산성의 성벽처럼 보이게 되었다. 게토에는 서로 다른 출신 성분의 유대인들이 좁고, 한정된 공간에 수용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유대인으로서의 존재'라는 하나 뿐인 공통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공간을 통해 형성된 이 정체성은 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유대인의 그룹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였고, '유대인'임을 외부세계에 말하기 위하여 통합적 대표기관의 형태를 발전시켰다. 베니스의 게토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워진 로마의 게토 안에는, 시나고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순수하게 게토에 관한 세계적 문제만을 걱정하는 형제애가 발생했다.[29] '유대인으로서의 존재'는 다른 민족들과 분리되어 유대인들을 성스럽게 하는 약속이었다. 신성과의 연결은 모세의 세 번째 책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30] 분리는 압박을 당하는 자들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시켰고 저주받은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화시켰다.

28)Zacaria Dolfin: zit. Aus Benjamin Ravid, 'The Religios,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hetti of Venice", [1983] in: Gli Ebrei e Venezia, Hg. Gaetano Cozzi, Milano, 1987, p.215
29)Sennett, Richard: Flesh and Stone. New York and London, 1994. dt: Fleisch und Stein. Berlin. 1995, p.303
30)Altes Testament, Das dritte Buch Mose, 19. 20.

5. 결론

진입공간은 건축적으로 표현된 일종의 문턱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은 네 가지 기능을 가지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의 정도가 달라진다.

(1) 목적에 부합한 기능

'기능'이라는 단어를 건축 분야에서 사용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적의 부합됨을 의미한다. 즉,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은 내부공간으로의 진입을 보장하며 진입공간이라는 단어의 정의에는 항상 이러한 기능이 내포된다.

(2) 보호 기능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은 출입을 통제한다. 보호 기능의 요구정도는 일차적으로 외부세계와 내부세계 간 존재하는 간극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간극은 집단적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도 확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위험하고 공격적이고 시끄럽고 추악한 것이 또는 단지 익명의 외부인이 우리의 세계로 침입하는 것을 방어한다. 다섯 개의 자물쇠를 장착한 문이 달려있는 뉴욕의 아파트들처럼, 보호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도시들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보호를 수행하는 설치도구의 범위와 세부적인 설비의 정도는 그 사회의 기술력에 의해 좌우된다. 여기에는 건물의 보수적 정의와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수성이 속한다. 그래서 창문, 문 그리고 여기에 속한 보호 수단이 중동아시아와 서방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에 의해 전해 내려온 보호 장치들이 종종 다른 나라의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특정한 구조방식의 자체 논리에 의하여 바뀌곤 한다.

(3) 의미론적 기능

한 장소를 규정하는 특징은, 현재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 여하에 따라서, 경계의 이쪽과 저쪽에서의 특정한 행동양식을 암묵적으로 지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역사적으로 진입공간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진입공간과 어떠한 종교적 의식과의 연결에 대한 가정이다. 신 또는 주권자 숭배에 대한 고대의 형식에서는 준비단계를 요구했다. 숭배 의식이 한 장소와 연관되면, 턱이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생성되었다.[31] 두 번째로, 문과 그 곳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위공간은 거주자의 믿음을 공포하기 위하여 선호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출입문에 새겨진 현판이나 글씨들, 크기 그리고 이를 장식한 화려한 문양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진입공간도 개인공간으로 진입에 필요한 종교적인 준비공간이며 동시에 진입하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전이공간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는 거주자들의 평균적인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변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4) 사회적 기능

진입공간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는, 공동주거건축물의 진입공간이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동일한 장소와 시대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름을 가졌거나 또는 신뢰하는 모든 환경은 한 그룹의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시키며 구성원 간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기억들이나 상징들을 위한 재료를 제공한다. 어떠한 풍경 속에서 보이는 상징적 질서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 간에 감성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끌어내는데 기여한다. 단지 낯설지 않은 풍경조차도 고독함이 적게 묻어나는 또는 두려움이 적게 느끼게 하는 상황을 연출되어, 올바른 그리고 믿을만한 장소에 있다는 느낌을 발산한다. 단지 이름을 부여하거나 특별한 차이점을 갖는 환경은 생명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삶의 체험에 깊이와 시적 감흥을 부여하는데 기여한다.

인간의 정체성이 심벌과 기호의 의미론적 내용을 전달하는 정체성의 제공자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 다수의 집단과 그들의 환경이 의미하는 것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개개의 인간이 건재함을 느낀다면 심벌의 실체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입공간은 다수의 사용자의 인지습관에 맞추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공동주택 진입공간의 네 가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능과 그 의미간의 교환 작용과 진입공간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구성함에 있어 '구성의 명료함'과 '생기 있는 특성'[32]이 강력한 심벌을 발전시키는 첫 번째 단계이다. 공동주택의 진입공간이 거주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밀착된 장소가 될 때, 이는 의미와 관념을 연합시키는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온상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Rasmussen, Stehen Eiler: Architektur Erlebnis, üb. Elisabeth Drugowitsch, Stuttgart, 1980
2. 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u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dt: Das Bild der Stadt. (Übers. Henni Korssakoff-Schröder, Richard Michael). Braunschweig/Wiesbaden, 1989
3. Dörre, A.: Entwicklung und Ergebnis des sozialen Wohnungsbaues;

31)Eliade, Mircea: Das Heilige und das Profane. Frankfurt a/M, p.26

32)Lynch, Kevin: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u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dt: Das Bild der Stadt. (Übers. Henni Korssakoff-Schröder, Richard Michael). Braunschweig/Wiesbaden, 1989, p.141

in: Berlin und seine Bauten. Teil IV. Band A, Berlin, 1970/ Türen, Sinnbilder und Abbilder, in: Wolfgang Lauter: Tür und Tore, Zwischen drinnen und draußen. Dortmund, 1980
4. Der Zehlendorfer Plan BW 1946, H.1, H.17, H.24, BW 1947, H.5, H.3 und mit dem Bebauungsplan für die Wohneinheit Friedrichshain von 1949 BW 1962, H.15/16
5. Rave, J.: 'Die Wohngebiete 1945-1967; in: Berlin und seine Bauten. Teil IV. Band A, Berlin, 1970
6. Flusser, Vilém: Das Ende der Tyrannei; in "ARCH+", Nr. 111, März, 1992/ Die Stadt als Wellental in der Bilderflut; in: "ARCH+", Nr. 111 März 1992
7. Schleichert, Hubert: Kassische chinesische Philosophie; Eine Einführung. Frankfurt a/M, 1990
8. Sennett, Richard: Fleisch und Stein; in: Der Körper und die Stadt in der westlichen Zivilisation, Berlin, 1997
9. Alberti, Leon Battista: De le aedificatoria libri X. Florenz, 1485. dt: Zehn Bücher über die Baukunst. Darmstadt, 197
10. Holgado, Pablo F.: Der Eingang, Form und kulturelle Einflüsse. Die Fakultät für Bauwesen der Universität Hannover, 1981
11. Broadbent, G. / Bunt, R. / Jencks, Ch.: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London, 1980
12. Meiss, Pierre von: Vom Objekt zum Raum zum Ort, Dimensionen der Architektur. 1993
13. Venturi, Robert: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New York, 1966. dt: Komplexität und Widerspruch in der Architektur. (Übers. Heinz Schollwöck). Braunschweig, 1978
14. Simmel, Georg: Das Individuum und die Freiheit. Frankfurt a/M, 1993
15. Christian Devilliers / Bernard Huer: Le Creusot, Naissance et development d'une ville industrielle 1782-1914. Champ-Vallon, 1981
16. Bollnow, Otto F.: Mensch und Raum. Stuttgart, 1963.
17. Rapoport, Amos: House Form and Culture. New Jersey 1969
18. Heidegger, Martin: Vorträge und Aufsätze 1990
19. Zacaria Dolfin: zit. Aus Benjamin Ravid, The Religios,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and Contex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Ghetti of Venice, [1983] in: Gli Ebrei e Venezia, Hg. Gaetano Cozzi, Milano, 1987
20. Altes Testament, Das dritte Buch Mose
21. Eyck, Aldo van: Forum 4, Amsterdam, 1960.
22. Eliade, Mircea: Das Heilige und das Profane. Frankfurt a/M, 1988

<접수 : 2006. 5. 29>